

‘뚫린 입’으로 창작의 자유를 외치다

광주독립영화제
17~19일 광주극장

41편 전편 무료 상영
다큐 ‘세월오월’ 개막작
홍성담 화백 관객과의 대화
지역영화 교류전
영화인의 밤 교류 포럼도



‘세월오월’

올해로 6화제를 맞이하는 2017 광주독립영화제(집행위원장 조재형)가 17일~19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상영작품은 총 41편으로 전편 무료 상영되고, 매 작품의 상영이 끝난 후 영화를 만든 감독과 관객들의 대화 자리도 마련된다.
올해 광주독립영화제의 슬로건은 ‘뚫린 입’.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가들의 입과 생각을 치졸한 방법으로 검열하고 틀어막았던 반발심을 반영한 것으로,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창작의 기본임을 담았다.
개막작은 조재형 감독이 연출한 ‘세월오월’이 선정됐다. ‘세월오월’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직후,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홍성담 화가의 절개 그림

‘세월오월’을 둘러싼 창작자와 관계 당국의 갈등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폐막작은 김경자 감독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다. 1980년 광주, 오월을 직접 겪었던 오월여성들의 항쟁당시의 경험과 항쟁 이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고 열심히 살아가는 현재 모습을 시적인 영상에 담아낸 작품이다.
개막식에서는 ‘놀이패 신명’의 박강의 씨가 ‘세월오월’을 춤으로 승화시킨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고, 개막작 상영이 끝난 후에는 홍성담 화가와 관객들의 대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폐막식에서는 ‘꽃님이벤드’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이밖에 이주형 감독의 ‘포크레인’, 송원재 감독의 ‘아파트먼트’, 이동석 감독의

‘MCM 샘플러’, 윤수안 감독의 ‘인간의 밤’ 등과 함께 이승준 감독의 ‘물꽃’, 이경준 감독의 ‘자유로워질 때쯤’, 박주영 감독의 ‘이전의 일’, 황주혜 감독의 ‘산소공급기’ 등을 선보인다.
또 ‘지역영화 교류전-대구경북 초청’, ‘지역영화 교류전-로컬시네마’, ‘지역영화 교류전-지역 장편’ 등의 섹션을 마련해 전국공모를 통해 출품된 71편의 작품을 중일부를 상영한다.
18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는 부산의 김지곤 감독 등 전국의 독립영화감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영화 창작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영화인의 밤 교류 포럼’이 열린다. 문의 010-4660-579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어린이 동화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공연

20~24일 광주아트홀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 동화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사진)이 오는 20일부터 24일 오전 10시30분 광주아트홀에서 총 5회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사)빛소리오페라단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특성화 극장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그림 형제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헨리크 작곡하고 그의 누이 베테가 대본을 쓴 작품이다. 독일 민요의 친근한 멜로디와 한국적인 따뜻한 가족애를 그려, 아이들이 어른 모두를 위한 작품으로 재구성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각색한 ‘헨젤과 그레텔’은 스토리텔러의 이야기풀이 형식으로 공연이 진행되며, 재미있는 개그소재와 클래식음악의 조화를 통해 마법과 같은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총감독은 최덕식(빛소리오페라단장)이 맡았으며 지휘 및 연출은 박미애(광주대

교수)가, 음악코치 및 반주는 천현주(피아노), 장희경(일렉트론), 이유정(신디사이저)이 맡는다.
헨젤역에 윤희정, 장희정, 그레텔역에 임영란, 이현숙, 마녀 역에 조정희, 이슬요정역에 양인영, 스토리텔러에 박정희가 출연한다. 문의 062-227-744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수능 공연·수험생 할인 이벤트 줄줄이 일정 조정

‘ACC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 개강 28일로 늦춰
광주문예회관 ‘수능 대탈출 비보이 크루쇼’ 예정대로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1주일 후인 23일로 연기되면서 일부 문화 행사들도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준비한 문화예술 관련 분야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당초 21일에서 28로 개강을 늦춰 운영된다.
2018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웹툰작가와 무대디자이너, 무대영상디자이너 과정으로 구성돼있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 인력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1899-5566.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서병진)이 고3 수험생과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 기획공연 ‘수능 대탈출 비보이 익스트림 크루쇼 Hey! Mr. BIG’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18일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똥똥한 비보이 세진의 사랑과 우정이 야기’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구성했으며 비보잉, 힙합, 팜핑, 하우스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배우들의 신명나는 연기,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다. 모든 학생들은(초·중·고등학생)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13-8353.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진행중인 ‘달을 품은 수퍼맨’의 할인 이벤트 일주일 늦춰 23일부터 진행된다. 23일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을 무료로 관람가능하며 동반 3인까지 70% 할인된다. 24일부터는 수험표 지참 시 본인인을 포함해 동반 3인까지 7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달품맨’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달동네를 배경으로 윤도현, 우현 형제 가족을 통해 달동네 사람들의 인생살이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은재기자ej6621@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

‘인문지행’ 문화행사
내셔널갤러리 작품 감상

19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인문학 시민공동체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11월 행사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문화예술 기획은 매월 한차례씩 세계 미술관 명작을 감상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품 중 반 에이크,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 빈치 작품을 집중적으로 만난다.
현재 약 2000여점의 회화를 소장한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는 1838년에 문을 연 영국 국민들의 자부심이다. 감상 작품은 반 에이크의 유명한 걸작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 보티첼리의 ‘신비한 탄생’과 ‘비너스와 마르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암굴의 성모’ 등이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2656-9208, /김미은기자 mekim@

청소년 드림 뮤지컬 ‘나에게 주어진 ...’ 공연

20일 광주교대 하정웅아트홀

청소년 드림 뮤지컬 ‘나에게 주어진 멋진 하루’ 공연이 오는 20일 오전10시30분과 오후 2시, 21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 하정웅 아트홀에서 펼쳐진다.
뮤지컬 ‘나에게 주어진 멋진 하루’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했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꿈을 찾아 나가는 5명의 주인공들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삶’의 소중한 것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 8월 광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창작 초연 시연회를 마친 이후 많은 학부모들과 청소년들, 교사들의 성원에 힘입어 마련됐다.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경우 단체 관람 시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을 주최·주관하는 (주)씨썸뮤지컬 컴퍼니는 지역의 창작 뮤지컬 제작·공연·교육 기업이다. 일반 1만5000원, 단체(30인 이상)이거나 수험생, 희망교실차드로 예매할 경우 1만원. 문의 062-383-755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종교개혁 500년 해피데이음악회

19일 광주문예회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피데이음악회’가 오는 19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신안교회와 광주 시민들을 초청하여는 이번 음악회에는 임마누엘연합합창단 300여 명과 신안남성선교총창단, 글로벌선교뮤지컬팀이 출연한다.
이 날 공연에서는 베르디의 ‘히브리로노예의 합창’,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중 ‘기뻐하며 경배하자’, 헨델의 ‘메시아 44번 할렐루야’에 이어 ‘죽으면 죽으리라’, ‘은 땅이며’, ‘축복의 길’, ‘죄 많은 이 세상을’,

‘오늘을 위한 기도’, ‘눈물의 참회록’, ‘모든 것을 사랑하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휘는 김연주(초당대학교 음악과 교수)씨가 맡았으며 피아니스트 동수정(이화여대 초빙교수), 오르가니스트 오현진 씨가 협연한다.
이번 콘서트는 깊어가는 가을밤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중세를 밝힌 종교개혁의 의미를 공유하고 되새기며, 광주시민 모두에게 음악적 실례와 감동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문의 010-3610-853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